



카네기홀의 클래식 콘서트홀인 '아이작 스톤 오디토리엄'



올해 개관 120주년을 맞은 뉴욕 카네기홀 전경. 소박한 외양과 달리 과학적 설계로 지어진 공연장은 건물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악기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뉴욕=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되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미국편
<20>카네기홀

조용필·인순이도 공연...세계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

뉴욕 =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뉴욕 맨하탄의 미드타운 7번가를 지나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고풍스런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전 세계 음악인들이 동경하는 카네기홀(Carnegie Hall)이다. 테라코타를 연상시키는 붉은 색 석조건물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준다.

카네기홀은 올해 개관 120주년을 맞은 뉴욕 최고의 콘서트홀이다. 철강왕으로 잘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1835~1919)가 전용 공연장이 없었던 뉴욕의 심포니 소사이어티와 오라토리오 소사이어티를 위해 지난 1891년 건립했다.

스코틀랜드 출신 '아이언 맨'의 마음을 녹인(?) 사람은 25세의 젊은 지휘자 월터 담로스(Walter Damrosch)였다. 1887년 4월22일 52세의 카네기는 6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한 아내 루이즈 윌트필드(당시 30세)와 함께 자신의 고향 스코틀랜드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뉴욕발 런던행 여객선에 올랐다.

마침 이 배에는 마에스트로 한스 폰 빌로에게 지휘법을 배우기 위해 독일로 가던 담로시가 타고 있었다. 카네기의 부인 윌트필드는 뉴욕 오라토리오 소사이어티의 합창단원으로 활동중이어서 카네기 부부와 담로시는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다. 카네기는 담로시로부터 공연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심포니 소사이어티의 '딱한 사정'을 전해듣게 됐다.

뉴욕 심포니 소사이어티는 당시 뉴욕 필하모닉 소사이어티(현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비해 '2류 교향악단'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의 대관을 따내는 데 애로가 컸다. 그 때문 해도 뉴욕에는 콘서트 홀이 많지 않은 데다 인기가 높았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는 상주 오케스트라의 시즌이 끝나는 여름에만 반짝대관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뉴욕 필하모닉 소사이어티에게 대관 우선권이 주어졌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카네기는 1889년 '뮤직 홀 컴퍼니 오브 뉴욕'(Music Hall Company of New York)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0만 달러를 건립기금으로 내놓았다. 또한 센트럴파크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맨하튼 7번가 56 스트리트와 57스트리트 사이의 직사각형 대지를 매입해 공연장 부지를 쾌척했다. 설계는 34세의 건축가 윌리엄 버넷 터실이 맡았다.

당시 아마추어 첼리스트이자 뉴욕 심포니 소사이어티 사무국장이었던 터실은 콘서트 홀을 설계해본 적이 없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음향전문가 단크마 아들러(Dankmar Adler)의 도움을 받아 수백여 개의 공연장 음향시설을 연구했다. 오랜 고심끝에 그는 메아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카네기 설립 120년...차이코프스키등 거장들 거쳐가 클래식·재즈 등 800회 공연...뉴욕 최고의 음악당

최초의 반사음과 직접음의 시간차를 0.9초 이내로 하고 잔향시간 유지와 고른 음향전파를 위해 소파 덮개와 톱의 카펫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설계했다.

특히 도심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외벽을 1m 두께의 석조와 콘크리트로, 내부 벽은 석고로 마감했다. 이런 꼼꼼한 설계 덕분에 카네기 홀은 연주자와 청중들로 부터 세계 최고의 공연장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톤(카네기홀 초대극장장)은 생전 "건물 자체가 하나의 뛰어난 악기"라면서 "연주를 그대로 전달해주지만 때론 실제 보다 더 과장되게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즉, 연주를 잘 하면 더 잘한 것처럼 들리게 하지만 반대로 연주를 망치면 아주 못하는 것처럼 들리게 한다는 얘기다. 많은 음악인들이 카네기홀 무대를 두려워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891년 '앤드류 카네기가 설립한 뮤직홀(Music

Hall Founded by Andrew Carnegie)'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신고식을 했지만 2년 후 '카네기홀'로 줄었다. 뮤직홀이라는 명칭이 유럽에선 정통 클래식 보다는 대중적인 음악극을 즐기는 '보드빌'(vaudeville)을 떠올리게 해 폭력에 맞지 않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층 높이로 지어진 카네기홀은 대극장인 아이작 스톤 오디토리엄·페럴만 스테이지(Isaac Stern Auditorium/Ronald O.Perelman Stage·2804석·아이작 스톤 오디토리엄), 실내와 전용홀인 잔켈 홀(Zankel Hall·599석), 리사이트홀인 와이 홀(Weill Recital Hall·268석), 그리고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극장은 1950년대 카네기홀이 경연장으로 부동산업자에게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카네기홀 수호대책위원회'를 결성, 뉴욕시에 SOS를 청해 비영리회사 '카네기홀 코퍼레이션'을 출범시킨 아이작 스톤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에서 따왔다.

1892~1962년까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전용홀이기도 했던 아이작 스톤 오디토리엄은 수많은 '레전드'(legend)들의 열정과 꿈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를 비롯 전설의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슈니트케, 블라디미르 호로비치, 바이올리니스트 외젠스 이자이, 고토 미도리, 미샤 엘먼, 이차크 페들만,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 파블로 카잘스, 요요마, 마에스트로 토스카니니, 예후디 메뉴인, 레너드 번스타인 등 거장들이 카네기홀을 거쳐갔다.

카네기홀은 클래식 공연을 위해 설계됐지만 종종 시대를 풍미한 대중스타들에게도 가까이 안방을 내줬다. 비틀스, 롤링스톤즈, 베니 굿맨 등은 물론 국내에선 조용필, 패티 김, 인순이, 이선희 등이 '꿈의 무대'에서 영예를 누렸다.

개관 초기 50여 회에 불과했던 공연은 매 시즌 800여 회로 늘어났다. 특히 지역사회와 학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와 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뉴욕커들의 음악애카로 자리잡았다. 이 가운데 뉴욕 5개 자치구의 초·중·고 공립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와일 뮤직 인스티튜트'(Weill Music Institute)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해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jhpark@kwangju.co.kr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결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여호실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회갑연,송년모임,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점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수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

골프레슨의 큰 꿈을 바꾸다

김현의 마음골프 골프는 마음의 수련으로 향상된다!

오태환의 개그골프 이보다 더 재미있는 골프 레슨은 없다!

전옥휴의 스마트골프 분석이 함께하는 전문 골프 레슨의 진수!

제이슨 강의 리얼레슨 세심한 진정성으로 승부한다!

에디조의 베이직골프 세계적인 정석골프 레슨을 지향한다!

5분 레슨이 충분 하시던가요?

이제 '자이언트 골프존'에서 국내 유명 프로들의 전문 레슨을 한시간 동안 집중과외 받으세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심리학 개인맞춤 레슨

Giant Golfzon
Golfzon의 새로운 레슨 프로그램 '마이티'는 '자이언트 골프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21-0071
www.ggolfzon.com
전옥휴 프로 단독레슨
11월 30일(수) 전옥휴 프로 자이언트 골프존 단독 레슨 예정!! 상세일정은 회원님께 추후 통보

보고 + 듣고 + 따라하기